

청소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박 성 희*

- I. 청소년 문화의 개념
- II. 청소년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관점
- III. 청소년문화연구에 있어서의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 : 현지연구
- IV. 현지연구의 단계 및 절차

최근에 와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의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와 함께 청소년문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학술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일으키지는 못함으로써 청소년문화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약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다. 청소년문화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청소년문화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문제중심으로 예방과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청소년문화 그 자체를 학술적으로 다루거나 청소년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연구는 무척 적은 실정이다. 또한, 상당한 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문화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 표면이나 형식에 대한 설명적인 접근에 치우침으로써 청소년문화를 에피소드화 또는 단편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띠고 있다. 결국, 청소년 및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 성격이나 연구방법과 관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독특한 학문의 연구영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연구인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방법을 청소년문화의 연구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에서의 청소년문화의 의미를 살펴보

고, 청소년문화를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인류학의 기본 관점과 연구방법 및 기술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인류학적 연구의 기본이 되는 현지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현지연구의 특징, 단계와 절차, 방법과 기술, 방법상의 문제들을 간략하게나마 다룸으로써 청소년문화 연구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한다.

I. 청소년 문화의 개념

1. 문화와 문화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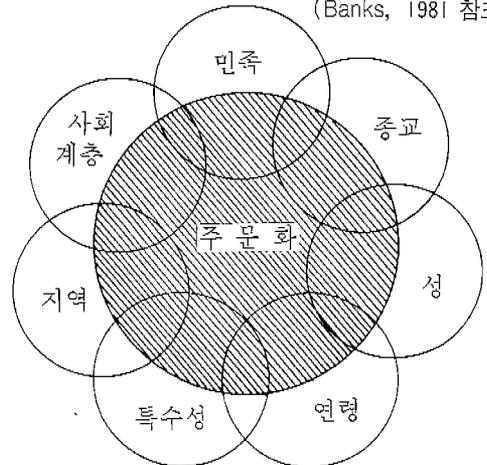
문화인류학에서의 문화란 인간의 모든 행위 및 그런 행위의 산물을 포함하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화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화적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관심과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문화개념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화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은 어느 것이 옳고 틀린 것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그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에 대해서 내려진 수많은 정의들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문화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공유하는 공통적인 생활양식으로서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과 태도를 포함한 모든 행위와 그런 행위의 산물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즉, 문화는 언어, 예술, 신앙, 지식, 가치관, 이념, 도덕,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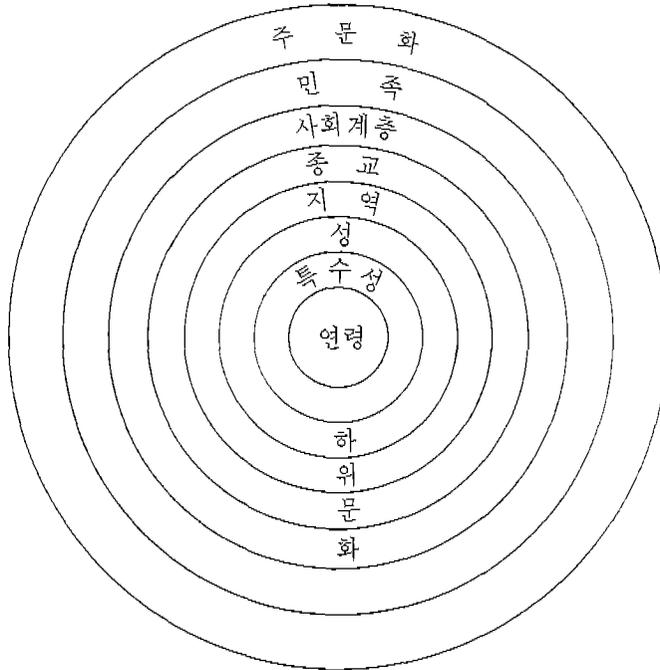
관습, 규범, 예절, 기술, 도구, 산물 등 인간 생활경험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주문화 *main culture*와 사회구성원중의 일부분만 가지는 하위문화 *subculture*로 나눌 수 있다. 주문화는 보편적인 혹은 국가적인 문화로서 한 사회의 기간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하위문화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하위집단에서 다른 집단과는 구분이 될만큼 특이하게 나타나는 문화를 말한다. 한 사회내 문화는 민족, 성, 연령, 계층, 종교, 지역, 특수성, 그 사회의 배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 많은 특유한 하위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예를 들면,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한국문화, 중국문화, 흑인문화, 유대문화, 여러 소수민족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남성문화, 여성문화로, 연령 집단에 따라 아동문화, 청소년문화, 성인문화, 노인문화로 나눌 수가 있다. 종교에 따라 기독교 문화, 천주교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등으로, 사회계층에 따라 중상층문화, 하층문화,

<그림 1> 주문화내에서의 하위문화간의 상호작용
(Banks, 1981 참조)



<그림 2> 개인의 문화정체성 (Gollnick & Chinn, 198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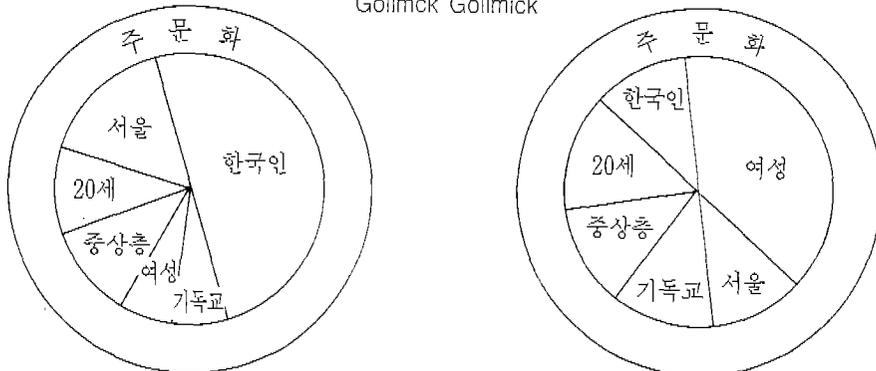


빈민문화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도시문화, 농·어촌문화, 산촌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의 행정구역에 따라 영남문화, 호남문화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어떤 문화속에 있는 작은 문화로서 전체로서의 문화체계내에서의 하나의 하위체제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는 전체적인 한 문화내에 여러가지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하게 된다.

다양한 하위문화들은 상호무관하게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관련되어 하나의 전체 문화, 주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한 사회의 개인은 여러 하위문화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문화 정체성 *cultural identity*은 어느 하나의 하위문화가 아닌 여러 하위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게 된다

<그림 3> 하위문화의 영향과 하위문화 정체성에 근거한 개인의 문화정체성
Gollmck Gollmick



(그림 2 참조). 그러나, 다양한 하위문화들이 다 개인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하위문화는 다른 하위문화보다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같은 하위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일지라도 어느 하위문화에 더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달라지게 된다(표 3 참조).

2. 청소년문화의 개념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집단은 한 사회내에서 연령계층적인 특성을 갖는 하위집단으로서 청소년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하위문화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집단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로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윤리의식과 규범, 태도, 언어, 복장, 행동, 인간관계, 오락 및 여가생활 등 그들의 내면적인 의식구조 뿐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양식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의식, 즉 청소년집단에 대한 연대의식 및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만의 독특한 특질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는 전체 사회의 주문화의 테두리속에서 주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발전시키는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기성 성인사회의 문화의 일면을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전체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주문화의 특질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청소년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질, 즉 청소년문화의 특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하위문화로서의 청소년문화는 사회의 주문화의 규범이나 기준에서 약간 벗어날 경우

가 흔히 있으며, 또한 주문화와와의 거리가 너무 커져서 갈등이상의 대립관계를 빚으므로써 서로 병존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는 반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는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반드시 반사회적인 반문화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주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에 의해 창조되고 선택되며 향유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은 다같이 청소년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본성 자체를 반영하는 청소년문화 역시 보편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의 공통적인 본능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가치관과 청소년의 생활속에 있어서 보편적인 필요 및 상황을 다루는 공통적인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문화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배경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본성 자체는 같으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청소년문화 역시 상대적이다. 청소년문화는 전체 사회의 주문화속에서의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다른 하위문화와 밀접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맺으므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청소년은 청소년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하위문화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결국, 청소년집단은 민족, 성, 연령, 종교, 교육, 사회계층, 지역, 특수성 등 청소년의 배경에 따라 그 나름대로

독특한 가치와 표현방식을 가지는 다양한 하위 집단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집단을 반영하는 청소년문화는 그 형태, 성질,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의 생활경험의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무척 이질적이고 다양하기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그 영역을 일관성있게 정리하기가 무척 힘들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 따라 청소년문화이론의 전개양상과 기술에 있어서의 강조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문화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의 조장이 필요하게 된다.

II. 청소년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관점

문화인류학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써 총체론 *holism*, 문화상대론 *cultural relativism*, 비실험적 접근 *aexperimental approach*, 그리고 비교론 *comparism*을 들 수 있다(김 영찬, 1985 : 201-20 ; 한 상복외, 1989 : 19~23 ; Singleton, 1974 : 34).

1. 총체론의 관점

총체적인 접근이란 심리학과 사회학의 분석적인 견지와 대조되는 견해로서 인간·사회·문화 등 인간생활경험의 모든 측면을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련된 하나의 총체로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한 상복외, 1989 : 4 ; Weiss, 1966). 즉, 연구대상과 장면을 문화체제의 일부이며 문화적 과정의 일부로

서 간주하고 연구대상의 성격을 그 연구대상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게 된다. 이 방법은 어떤 사물의 부분도 총체를 떠나서는 충분하고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으며, 그 반대로 어떤 총체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치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없다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한 상복외, 1989 : 20). 이 관점은 인간행동의 다양성에 주 관심을 두고 인간과 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함으로써 상황이나 맥락과 독립하여 설명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보다 복잡한 상황과 함께 체제의 특성과 주어진 맥락속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다(한 상복외, 1989 : 20 ; Singleton, 1974 : 34).

총체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세대들만의 문화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화체제내에서의 하나의 하위체제로서 그 사회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문화는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주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 결국 청소년문화의 성격은 청소년문화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청소년문화의 의미, 내용, 형태, 기능등은 각 사회의 문화적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문화를 연구할 때는 청소년문화 그 자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그 사회 전체의 문화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청소년문화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특히, 청소년

문화와 다른 하위문화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청소년문화를 그 사회의 전체 문화의 맥락속에서 다른 하위문화와 상호관련시켜서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총체적인 접근방법은 보다 넓은 문화적 맥락속에서 청소년문화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 본질과 범위를 보다 명백하게 확인하게 해주어 청소년문화의 현실적인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방법은 청소년문화의 특징적 성격을 조성하고 있는 요인, 특히 청소년문화의 사회병리적이고 비행적인 현상을 낳게 하는 환경요인(정신적, 물리적)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그 한계속에서 모든 대안적인 해결책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이 접근 방법은 청소년의 행동 그 자체 및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의미와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무척 중요하다. 이는 비록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 특정한 양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문화 정체성은 전체로서의 생활양식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문화상대론의 관점

문화상대주의란 어떤 특정한 사회의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 대신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 및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관점을 말한다(한 상복외, 1989: 21). 이 입장에서는 모든 문화는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오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간

주된다. 사회의 특정한 환경과 그 적응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민족과 그들의 문화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가치판단에서 벗어나서 모든 문화는 공존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등한 관점에서 인간과 문화를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똑같이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각 문화의 고유성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의 문화적인 신념이 아닌 그들의 용어로 그 자체 문화의 중요성의 견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iller, 1979: 44). 결국, 이 문화상대주의의 주 핵심은 모든 문화는 독특하며, 따라서 그 사회의 맥락에서 그 자체의 의미로 설명되어야 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Kneller, 1965: 31).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 있어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독특하게 발전하고 형성한 청소년 특유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으로서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독특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소년문화는 각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사회내에서도 변하게 되므로 청소년문화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형태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문화를 연구할 때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여러 배경, 즉 그 사회 그 시대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련시켜 청소년문화를 상대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특히,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들

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발달해왔기 때문에 그 문화 역시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청소년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청소년문화를 기성세대의 문화적 견지에서 보고 그 문화적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소년들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속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 즉, 기성세대의 문화를 중심으로 기성세대의 문화를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청소년문화를 주로 사회병리적인 현상의 하나로써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고 열등하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무가치적인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려는 성인들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를 보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문화적 견지와 다른 견지에서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은 청소년 특유의 문제뒤에 숨어있는 원인과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갖고 청소년문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하여 기성세대의 문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간의 문화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공헌도 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주의적 관점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보다 개성과 특징이 있는 주체적인 문화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3. 비실험적 접근법

실험실에서 미리 통제하거나 설계된 실험을 행하는 실험과학과는 달리 문화인류학에서는 연구대상인 사회와 문화를 연구목적에 맞도록 통제하거나 실험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학자는 실험실 대용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상황속에 직접 들어가 연구를 해야 한다(한상복외, 1989:23). 연구에 필요한 조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연구자에 의해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실시되는 인공적인 상황에서의와 달리, 실제 상황에서는 연구자가 관찰 이전에 규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변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현장에서 주어진 사태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류학적 연구는 연구대상에게 어떤 특정한 전제하에 실험적인 조건통제를 가하지 않고 연구대상을 자연상태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비실험적 연구방법에 기초하고 있다(Singleton, 1974:34).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의도적, 조직적인 조작을 한 특정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현상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는가를 연구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대상 문제에 관련된 모든 변인을 그것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연상태 그대로 관찰하고 연구한다. 또한, 현실사회의 실제 사태는 그 맥락을 떠나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류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어떠한 가정이나 전제보다 오히려 그 특수한 조건과의 맥락(context)을 중요시하여 그 맥락에 비추어진

연구를 한다(김 영찬, 1985 : 203).

실상 인류학적 연구의 과학성에 대한 많은 비판은 연구의 비실험적인 성격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변인의 통제는 정도의 문제이던 한 연구 방법과 다른 연구방법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실험과학은 다만 모든 알려진 변인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실험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지지 않은 부가적인 변인을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실험적인 연구는 알려진 특수요인을 엮매이지 않고, 관심을 가진 문제나 사태에 관련된 모든 변인에 대하여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 영찬, 1985 : 203-204). 또한,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특별한 의도나 조작을 가하여 통제하는 실험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연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고 관찰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관찰자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관찰에 대한 통제가 시행된다(Singleton, 1974 : 34).

이러한 비실험적인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청소년문화를 연구할 때에는 연구자가 청소년들이 실제 성장·발달하고 생활하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생활현장속에 직접 들어가 주어진 사태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 그대로를 직접 관찰하고 기술하여 연구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생활현장에서 비실험적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현장의 실제 사태와 그 의미에 대한 직접적이고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문화의 현실적 상황과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연구는 청소년과 그 문화의 현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이론을 형성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의 파악과 해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4. 비교론의 관점

인류학자는 문화의 유형, 구조, 기능등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지역연구에서 얻은 실제적인 현상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문화상대론의 관점에서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시켜 비교연구한다. 다양한 여러 사회의 문화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여러 사회의 문화들간 그리고 문화의 배경원인(사회·문화적 결정요인)들간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하여 이론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기술한다. 다양한 여러 사회의 문화 양상들간에 나타나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다시 기준에 따라 동시 비교하여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일반화를 하고 이론화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대한 비교나 종합적인 연구없이 단일한 연구는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쉽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비교학적인 과정을 통하여 문화의 보편성과 다른 사회의 독특한 점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문화의 특수성을 명백히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자기 자신의 특이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문화의 이론, 방법 및 문화적 경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흔히 내릴 수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공정하게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교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여러 문화현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문화적 식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에 따라 자신의 문화를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각, 평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비교학적 관점에서 청소년문화를 그 사회 또는 다른 여러 사회의 청소년문화와 비교연구함으로써 청소년문화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이나 가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비교학적 고찰을 통하여 청소년문화의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자신의 청소년문화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청소년문화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식하여 청소년문화의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청소년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정황진단과 아울러 다른 나라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청소년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 청소년문화 개선의 준거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청소년문화의 연구에 있어서의 비교론의 관점은 연구자들이 다른 청소년문화에 대한 연구 경험과 이해를 통하여 청소년문화의 연구에 필수적인 경험과 안목을 제공받아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III. 청소년문화연구에 있어서의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 : 현지연구

문화인류학적 연구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수단으로써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연구방법을 쓴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구도구는 현지연구방법이다.

현지연구는 연구대상의 실생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연구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연구집단의 생활속에 직접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상황을 관찰할 때까지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같은 언어와 습관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그들의 감정, 사고, 행동 등의 일체의 생활양식을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자연상태 그대로 관찰하고 질문하여 기록함으로써, 그들에 관한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지연구방법은 오래전부터 사회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어 왔으며, 그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되어 최근에 많은 개선책이 강구되어 왔다. 따라서 현지연구방법은 사회과학에서 무척 오래된 동시에 새로운 연구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1. 현지연구의 특징

연구자가 연구현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의 사회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현지연구는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장기성, 집중성, 국지성을 갖고 있다(김 영찬 1985 : 199-201).

(1) 장기성 : 문화는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일생동안의 학습과 사회활동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를 며칠 동안의 관찰이나 몇차례의 면접, 일정한 유형의 질문지 등으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관찰하고 기술할 수는 없다. 더욱이 문화에 부여된 의미, 가치, 상징, 인지방식 등과 같이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내면적인 것을 타 문화권의 사람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결국 현지 연구자는 자기가 관심

을 갖는 문화에 대해 피상적인 견해 이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시간 동안 그 문화안에서 생활하면서 연구대상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또한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그 사회집단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Best, 1981: 112).

현지연구의 연구기간은 연구문제의 유형, 내용,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지식과 그 문화 내부의 규칙이나 의사소통의 수단에 대한 통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연구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연구할 때는 대개 1년 이상의 현지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생소한 현지 상황에 적응하고 복잡한 문화 체계를 파악하는 데는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경험에 따르는 것이다. 또한 문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활동주기를 1년으로 보아 1년이면 그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을 관찰하고 그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중각, 1984: 105).

(2) 집중성: 집중성은 연구의 밀도에 관련된 특징으로서 대상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사회과학이 발전시킨 다양하고 광범한 방법과 기술을 가능한 모두 활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며,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모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면접이나 질문지 또는 각종 표준화된 검사에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면담이나 일상적인 대담과 관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모두를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대해 가능한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찰하고 기술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자신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생활 전체를 연구를 위해서 일관되게 보내야 한다.

(3) 국지성: 국지성은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특징으로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장기적 집중적인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적 정황을 한계짓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맥과 정황, 그리고 그 의미 등 연구분야내의 가능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술하려고 시도하지만 실제 모든 것을 근본으로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Babbie, 1983: 251). 또한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수집이 더 복잡하고 미묘해져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제한된 시간내에 조사 연구자가 직접 대상 집단의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없게 되었다(한 상복의, 1989: 24). 따라서 현지연구에 있어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보다는 연구대상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믿는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연구대상의 모든 측면에 관해 더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얻고자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의 한 개인이나 한 단체, 혹은 한 지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의 현지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전인적 관여에 의한 장기적, 집중적, 국지적인 탐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즉,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사회 현장에 가서 가능한 완전하게 관찰함으로써 연구대상에 대해 깊고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현지연구에 있어서의 연구자의 역할

현지연구에서는 독립변인들을 직접 조작하지 않으며 주로 현장의 여러 사회적 상황과 그 상황속의 개인과 집단의 행동, 지각, 태도, 가치관 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 연구자들은 실제의 사회구조속에 직접 연구대상자들의 행동, 활동, 그리고 그 의미를 관찰한 후 가장 중요한 변인들을 찾고, 그 변인들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연구자의 사회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현지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관찰이 연구의 원천이 된다. 연구자 자신이 연구도구로서 연구에 활용되기 때문에 현지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골드(R. Gold)는 현지 연구자의 4가지 다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Gold, 1969: 30-39).

첫번째로 완전 참여자 *complete participant*로서의 역할을 들고 있다. 완전 참여자는 자신의 목적과 정체를 연구대상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인정된 범위안에서 가능한 자연스럽게 연구대상과 접촉한다. 완전 참여자는 연구하는 집단의 실제 참여자일수도 있으며, 또한 참여자인 체 가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아닌 참여자로만 보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참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연구자로 밝히는 것은 연구하는 것의 성격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들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연구자를 배척하거나 자신들의 언행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

는 등 자신들의 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과정 그 자체가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 참여자는 연구자라는 것을 연구 대상자들이 알지 못하면 연구자들은 더 자연스럽게 정직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여기서 얻은 자료는 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연구에 임한다. 그러나 자신을 연구자로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연구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쉽게 감출 수 있지만 참여 그 자체는 관찰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하던 행하지 않던간에 참여자의 행동 그 자체는 연구하고 있는 사회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관찰되고 있는 것, 특히 상황전개에 있어서의 연구자의 참여에 따른 영향력은 명백하다. 연구자가 이런 영향력을 감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윤리적, 과학적 문제때문에 현지 연구자는 완전 참여자와 다른 역할을 주로 택하게 된다.

두번째의 역할은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participant as observer*이다. 관찰자로서의 참여자는 연구대상의 집단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지만 자신이 연구자라는 것을 연구대상자에게 명백히 밝힌다. 그러나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연구대상자들이 자연스런 사회적 과정에 집중하는 것보다 연구주체에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관찰한 사회적 과정은 더 이상 전형적인 것이 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함께 같은 언어와 습관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몰입하게 되면 그들과 지나친 친밀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견해와 흥미를 너무 강조할 위험이 있

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과학적인 객관성을 잃고 그 대상 문화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의 역할로는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observer as participant*를 들 수 있다. 이는 연구자로서 자처하고 사회적 과정에서의 참여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참여자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 참여자로서의 관찰자는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면접하거나 그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모든 생활을 관찰하고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관찰자 *complete observer*로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과 한 부분이 되지 않고 사회적 과정을 관찰한다. 연구자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은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완전 관찰자는 완전 참여자보다 연구대상과 같은 생활을 덜 하게 되고 연구대상에게 영향력을 다소 적게 줄 수 있다. 그러나 연구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며, 관찰은 단지 일시적이고 개략적인 것이 되기 쉽다.

이와 같이 현지 연구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연구대상자에게 자신이 연구자라는 것을 밝힐 수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자신이 연구하는 것에 참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지 연구자는 현장에서 직접 연구대상을 항상 연구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을 연구자라는 것을 밝힐 필요도 없으며, 연구하는 것에 항상 참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 간에 발생하는 윤리적, 과학적인 문제점들 뿐 아니라 역할 선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결국 연구자는 현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게 되나 이러한 역할 선택은 가끔 연구의 제한점이 되기도 한다.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선택하든 간에 현지연구 전체의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과 친밀한 관계 *rapport*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현지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자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훈련된 조작자가 되어야 한다(김재은, 1987: 173).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뿐 아니라 일반적 배경까지 포괄적인 지식을 가져 그가 일하게 될 지역사회나 기관의 사람들과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3. 현지연구의 장단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관찰을 전제로 하는 현지연구는 주로 간단히 수량화 할 수 없는 연구 주제와 사회연구에 적당하다. 현지연구 여론청취나 대학가의 데모와 같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혁명이나 폭동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과정연구에 특히 적당하다(Babbie, 1983: 244-246). 특히, 현지연구는 자연적인 장소에서의 사회생활을 엄밀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지나 실험실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적당히 연구할 수 없는 즉, 자연스러운 상황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주제 연구에 적당하다.

이러한 현지연구는 다른 방법으로는 측정이나 예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미묘한 대화, 태도, 행동과 사건 등을 감지하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대한 피상적인 전해 이상의 정보, 즉 의미, 가치 성장, 인지방식 등과 같이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내면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크게 공헌한다(Babbie, 1983: 266). 따라서 현지연구는 실험과 조사등 다른 방법보다 연구대상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측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특히 인간의 본성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관찰 이전에 변인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실험적 방법과는 달리 연구대상 문제에 관련된 모든 변인을 그것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연상태 그대로 연구하는 현지연구는 실험이나 조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시도될 수 있다. 또한, 현지에는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연구는 발견의 잠재적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연구의 진행과정속에서 현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해 준다.

현지연구는 현실적인 세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항상 실생활과 밀접하여 그 연구의 결과를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문제의 해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른 어떤 과학 연구보다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연구는 일반적으로 한 연구자에 의해 연필과 노트로써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실험도구나 연구요원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회과학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현지연구에도 역시 문제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상의 방법일 수만은 없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생활 전체를 연구를 위해 일관되게 보내면서 자기 연구문제의 한계 속에서 연구작업을 해야 한다. 현지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현상 자체가 변할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다른 요인까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설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변인들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으나 현지연구에서는 극히 간접적으로 밖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적 연구보다 현지상황에서의 변인을 측정할 때는 엄밀성이 적으며 인과관계의 설명이 약하다.

현지연구는 심층적인 반면에 연구에서의 관찰과 측정이 주로 연구자 개인의 관점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단히 개인적이다. 관찰과 측정들의 개인적인 성격은 같은 대상에 관한 연구일지라도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한 연구가 같은 대상에 같은 측정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할 때에도 측정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지연구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 측정방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현지연구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연구문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떤 특정한 영역의 특정한 상황과 사건을 선택하여 가능한 충분하고 완전하게 연구한다. 이러한 특정한 영역에의 집중

적인 연구는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중요한 통찰력은 제공할 수 있으나 전체 인구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연구대상이 연구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편견된 표본의 가능성이 많다. 결국, 현지연구의 결과는 엄격한 표본과 표준화된 측정에 근거한 결과보다 덜 일반적이어서 안전하게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연구에 의한 결론은 규정적 *definitive* 이라기보다 제안적 *suggestive* 이라고 볼 수 있다(Babbie, 1983: 267). 따라서, 현지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보편성을 띠는 것 보다 그 사태가 비슷한 상황에만 적용이 가능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국한적인 적용가치를 추구하게 된다(Best, 1959: 7). 그러므로 연구자는 현지연구 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어디에 어느 정도 특정한 관찰에서 벗어나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 적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현지연구는 방법과 기술, 편의성, 비용과 표본추출시간 등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관련된 약점이 있다(김재은, 1987: 178). 연구자의 의도대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변인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지, 대상자들이 협조를 잘해줄 지, 비용이나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지 등 연구실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지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경험과 능력이 연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진 현지연구는 실험이나 조사 등 다른 방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자료가

사실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validity* 은 높으나 신뢰성 *reliability* 와 대표성 *generalizability* 은 낮다. 따라서 현지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청소년문화연구에서 있어서의 현지연구

청소년문화를 연구할 경우에 현지연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등 청소년들이 실제 성장·발달하고 생활하는 현장 또는 생활 주변에서 연구 문제를 찾아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지연구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특정한 청소년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그 해결책과 청소년문화의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 청소년문화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에서의 현지연구는 연구이론의 개발이나 어떤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것보다 인류학자들에게 알려진 기존의 개념과 의미를 신중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 연구에 있어서의 현지연구는 인류학의 전통적인 현지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다르다(Khleif, 1974: 390-391 참조).

첫째, 인류학에서의 현지 연구자는 연구하는 집단에 전문가가 아닌 전혀 낯선 이방인으로서 연구를 착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와 전혀 다른 이국적인 문화적 배경속에서 문화적 충격 *cultural shock* 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 연구에서의 현지 연구자는 자신의 사회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의 어떤 극적인 변화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들이 수년간 계속 경험하고 관찰해 온 것을 관찰하게 되며 단지, 청소년

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편파적인 감정과 태도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같은 일종의 급격한 감정의 반동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현지 연구자는 낯선 이방인 관찰자로서 연구대상의 사회적 상황과 그 상황속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할 뿐 아니라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의식적으로 그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집단 내에서의 내부인으로 그들의 견지에서 관찰한다. 즉 현지 연구자는 외부인으로서 인간 조직의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참여자로서 연구대상의 내면세계에 파고 들어가 사회제도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되고 있는지 혹은 그 과정을 이해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Steiner, 1966: 36). 그러나, 청소년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현지 연구자는 청소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청소년들간의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현지 연구자는 매일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하루 혹은 일주일에 제한된 시간의 관찰을 근거로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현지 연구자는 청소년문화의 과정이 아니라 그 구조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집단내의 내부인이 아닌 낯선 외부인으로서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에 관련된 현지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청소년과 관계되어 있는 사회적 역할(주로 교사나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을 찾아 직접 담당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현장에 관여하면서 연구를 하거나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하여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IV. 현지연구의 단계 및 절차

현지연구는 자료수집 활동 뿐 아니라 이론형성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방법과 다르다(Babbie, 1983: 244). 명확히 규정된 가정이나 뚜렷한 예상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어떤 시험적인 가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실제 상황에서 실시되는 연구의 계속적인 진행과정속에서 시험하여 연구문제를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연구자는 어떤 잠정적인 가설에 따라 기본적인 관찰을 시도한다.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적인 일반적인 결론을 발달시키고 관찰에서 제시되는 대로 가정을 세운다. 이 새로운 가설이 시사하는 새로운 유형의 관찰을 행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면, 이를 기초로 다시 결론을 재평가하여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수정을 한다. 이러한 귀납적, 연역적 추론을 계속 교대로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이 현지연구는 자료수집 활동과 이론형성 활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순환적인 과정을 이루고 있는 일련의 연속적인 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지연구의 순환적인 연구절차에는 어떤 공통된 고정불변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지연구는 그 범위가 넓고 그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연구 자체가 창의적인 활동이므로 연구절차는 연구의 유형, 성격, 목적 등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연구자에 의해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연구의 획일적인 절차나 단계를 제시하기는 힘드나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지연구의 절차는 대략 다음

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 1) 연구의 계획단계 : 연구문제의 설정, 가설의 형성, 연구의 계획
- 2) 연구의 실행단계 : 적절한 자료수집방법과 기술의 선정, 실제의 자료수집 및 기록
- 3) 연구의 검증 또는 평가단계 : 자료의 분석과 해석, 일반화와 이론형성
- 4) 연구보고서의 작성단계 : 연구결과의 보고

1. 연구의 계획 단계

현직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대한 현지연구를 실제로 착수하기 전에 앞서 연구문제를 확인하고 연구에 필요한 여러가지 학문적, 일반적 조건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계획은 연구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적절치 못한 점이나 무가치한 점이 없는지를 쉽게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수집해야 할 자료 등의 구실을 해주며, 타인에게 주역이나 비판을 받기 위한 문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연구계획은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척 필요하다.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의 영역 및 문제에 대한 진술 뿐 아니라 연구 전체의 설계를 꾸미고 연구 집행절차를 정하고 문제해결의 전략 및 기술을 비롯하여 아주 상세한 활동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사전 계획은 좀 더 객관적이고 유효한 관찰과 분석을 낳을 수 있다.

(1) 연구문제의 설정 : 연구문제는 연구의 목표이며 핵심으로써 자신이 연구하려는 문제가 명확하게 설정되면 합리적인 가설과 연구 추진 방법이 형성되어 연구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연

구계획의 기본 사항이 결정되어진다. 어떤 문제를 기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연구자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연구는 초점이 희미해지고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구문제의 설정은 연구과정에서의 최초의 작업이 되며, 연구의 성패는 이 단계의 충실성 여부에 달려있게 되므로 연구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문제의 설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연구주제를 잠정적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연구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밝히고 이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연구주제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연구주제를 확정하거나 변경을 하게 된다. 연구문제를 설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연구문제의 내용 및 일반적, 이론적 배경, 연구의 목적, 가능성과 가치 등 연구하려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여 연구문제의 성격을 명백하고 엄밀하게 진술해야 한다(Travers, 1958). 즉, 연구문제를 명백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우선 연구대상에 친숙해야 하고 그 일반적, 이론적 문맥을 이해하여 그 자신이 연구문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2) 문헌연구 : 연구자가 연구문제에 익숙해지고 신중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택한 문제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내서 분석적, 비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문헌연구는 발표된 선행연구뿐 아니라 진행 중이거나 미완성이거나 보고되지 않은 관련 연구보고에 관해서도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문헌연구는 연구문제의 선택영역을 좁혀주고

연구문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명백히 해주어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공헌을 하므로써 연구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의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에 친숙해져서 선행연구물의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헌연구는 연구해야 할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Babbie, 1983: 250).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문제에 대한 의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문헌연구에 임해야 한다. 문헌연구는 무엇보다도 한정된 현지조사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연구 이전 뿐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3) 가설의 형성: 선정된 문제를 완전하게 분석하고 정의하여 연구문제가 명백해지면 연구문제에 관한 특수한 이론에 바탕을 둔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가설을 형성해야 한다. 가설이란 연구문제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까지 사실을 체계화하고 관계지어서 설명하기 위해 임시로 생각해 본 전제적 명제를 의미한다. 이는 연구를 시작하고 이끄는 개념으로서 실행하려는 연구방향과 방법, 적절한 자료 및 기타 다른 요건을 찾도록 하며, 연구 실행후에 나타날 어떤 결론이나 결과를 예견하게 된다(C. Goodced, 1959: 226-227; 김 기석, 1958: 21-22). 따라서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가설을 세우는 것은 연구 출발점이 된다. 가설은 검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변인간의 관계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하고, 연구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Travers, 1958: 81-86; 김 종서, 1980: 48-51).

(4) 연구의 계획: 연구계획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 자료, 도구와 기술, 절차 등이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 일로, 주로 가설에서 이끌어지고 가설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연구계획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그리고 그 계획만 있으면 외우거나 실행할 수 있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학교재편집위원회, 1986: 189).

첫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의 전 단계에 걸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켜야 하는지 연구진행의 절차와 일정, 그리고 계획과정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서술해야 한다.

둘째, 연구문제에 대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으며 출처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

셋째, 자료 수집후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수집된 자료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절차, 방법, 기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이 연구의 계획에는 실행 계획 뿐 아니라 실증적인 자료수집의 계획과 검증, 혹은 평가 계획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육학교재편집위원회, 1986: 189). 그러나, 현지연구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현상 자체가 변할 뿐 아니라 다른 요인까지 끼어들기 때문에 연구계획은 일정 불변이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항상 변경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가변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연구실행 단계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완성되어 연구의 최종안이 수립되면 이미 형성된 가설을 수립된 실천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게 된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개념, 방법, 기술, 도구 등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이 단계에서는 연구의 진행절차를 정하고 그 진행 일정에 따라 적절한 자료수집방법과 기술을 선정하여 연구대상 또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기록하게 된다.

(1) 자료수집 : 연구대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는 문화인류학은 그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종합적일 뿐만 아니라, 취급해야 할 정보와 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지조사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도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실제 문화인류학적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도구를 활용한다. 문헌조사, 관찰, 면접, 제보자 면접, 내용 분석, 질문지와 조사표, 기초적인 인구항목에 대한 통계조사로서의 인구조사, 여론조사와 시장조사, 그리고 지도작성, 녹음, 사진, 계보, 통계와 표본추출, 생활사, 평정 척도, 투사적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등의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어떤 한가지의 방법과 기술에 크게 의존해서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연구문제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현지에서의 그때 그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과 기술을 각기 다르게 선택하여 혼합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지연구에서는 관찰 특히 참여관찰, 면접 특히 비구조적 면접, 자료제공자 즉 주요 자료제공자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참여관찰 : 현지연구에 있어서는 관찰의 대상에 아무런 의도적·조직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대로를 대상으로 하여 관찰자는 어떤 제약없이 상당히 자유롭게 관찰한다. 연구자가 가능한 자유롭고 자연스런 환경속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을 관찰할 지라도 반드시 연구하는 것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제 현지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문화적 정황에의 전인적인 참여를 요하는 참여관찰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현지에 직접 들어가 장기간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언어와 습관으로 생활하고 그들의 일상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 정황과 생활 및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Spradley, 1980; 한 상복 외, 1989:26). 현지연구에서의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단순히 그 현장에 참여하고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과 함께 생활과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연구대상 문화의 자연스런 일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의식적으로 그 사회적 정황에 적합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하나의 탐색과정이다. 즉, 참여관찰자는 연구대상을 외부인으로서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할 뿐 아니라 연구대상의 내면세계에 파고 들어가 집단내의 내부인으로 그들의 견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면서 관찰해야 한다(Best, 1981:113; Bruyn, 1963). 이러한 참여관찰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탐구를 위한 실마리가 되어줄 뿐 아니라 특이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나 자료를 확인·평가하는 현장정보를 제공해 주

기도 한다(김 영찬, 1985 : 205).

비조직적 면접 : 면접은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면접자가 면접대상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서 응답을 얻는 조사방법이다. 면접은 질문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되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면접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의견이나 태도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의 근원에 뿌리박고 있는 내면적인 사고과정도 파악될 수 있다. 결국, 면접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거나 관찰이 허용되지 않는 많은 행위와 사건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연구에서는 면접방법과 관찰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한다(한 상복외, 1989 : 27).

현지연구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 자체를 얻는 것 보다는 응답자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접자와 응답자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나 제약을 주지 않고 상당히 자유로운 면접을 허용하는 비조직적 면접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면접자는 어떤 제약없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자유롭게 그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을 수시로 하며 대상자도 특수한 제한없이 자유로이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현지연구자는 주로 대화의 일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응답자에 의해 나타나는 특정한 주제를 추진하는 면접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Babbie, 1983 : 253).

이러한 비조직적 면접은 대상자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려는 의욕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질적으로 고찰할

경우나 그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여 전개시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조직적 면접은 면접자와 대상자간에 특정한 순서나 일정한 계획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이기 때문에 응답자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면접과 기록에 있어서 최대의 주의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비조직적 면접방법은 면접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숙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주요 자료제공자 : 현지연구에서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전혀 낯선 이방인, 즉 문외한이라는 전제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문화 내부의 사람으로부터 대상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연구대상의 문화 내부의 사람들 중 연구자의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자료제공자라고 한다(이 종각, 1984 : 119). 연구자가 주요 자료제공자로부터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연구의 목적을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프레이들리(Spradley)와 맥커디(McCurdy)는 좋은 제보자의 조건으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Spradley & McCurdy, 1972 : 46-47).

첫째, 그 문화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체로 나이가 많거나 그 집단에서 주요 임무를 오래 수행하여 풍부한 문화적 지식을 갖춘 그 문화에 통달한 사람이 좋다.

둘째, 자기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여 연구자에게 기꺼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리 문화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말하지 못하거나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제보자로서 부적합하다.

세째, 비학술적 용어 혹은 토착적인, 민속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주관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즉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조작하여 과학적으로 분석된 체계적인 지식이 아닌 자신들의 견지에서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해석하는, 그들이 가진 그대로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요 자료제공자는 조사연구의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전체 문화의 일반적인 윤곽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더 집중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지적해 줄 수 있다(한 상복외, 1989: 27). 따라서 연구자에게는 주요 자료제공자는 그 문화의 해설자이며 안내자이기 때문에 좋은 주요 자료제공자를 만난다는 것은 좋은 연구를 위해서 무척 중요하다.

(2) 기록: 연구자는 현지에서 관찰과 면접 등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항상 기록해야 한다. 관찰이나 면접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적절하게 잘 기록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관찰이나 면접사항이 연구자료로서의 그 가치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의 기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연구자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적절히 기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

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주의를 다음과 같이 필요로 한다(Babbie, 1983: 255; 김 재은, 1987: 492; 교육학교재편집위원회, 1986: 75; 한 상복, 1983: 217-218).

첫째, 모든 조사가 끝난뒤에 나중에 기억을 토대로 일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관찰이나 면접을 할 때마다 그때 그때 즉시 기록하거나 또는 그 현장을 떠난 뒤 될수록 빨리 기록하고 정리하여 생생하고 정확한 기록이 되게 한다.

둘째, 관찰이나 면접중에 기록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방해하지 않고 사건들을 따라 잡기 위해 유의하여 요령있고 민첩하게 기록해야 한다.

셋째, 관찰하고 면접한 사항을 요약 혹은 압축하거나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기록을 하면 나중에 자료분석이나 결론을 내릴 때에 기록내용을 왜곡하여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제로 보고 들은 것만을 사실 그대로 될수록 하나 하나 충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넷째, 기록 당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찰하고 면접한 사항은 가장 현저하고 중요한 행동상의 특징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가능한 많이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현지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록방법은 노트와 연필을 사용하는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것이나 좀 더 효과적인 기록을 위해 녹음기, 카메라, 촬영기, VTR 등의 도구와 관찰물, 기록물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연구의 골격이 되는 현장노트는 사실 그대로를 가능한

그때 그때 기록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용어나 숫자, 시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추구하고 기록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분류하고 정리하여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는 현장노트를 항상 검토하여 질문하고 관찰해야 할 것 중 빠진 것을 찾아내고 다시 묻고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기록은 현지연구과정에서 통합된 부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검증 혹은 평가 단계

현지에서의 연구가 끝나면 연구실행과정에서 수집된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고 그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적용하여 연구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론을 형성해야 한다. 연구의 최종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설정된 가설이 확인 또는 지지되었는지 아니면 거부되었는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게 된다(한 상복외, 1989: 29).

(1) 분석과 해석: 대개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 그 자체들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만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집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적절히 해석함으로써 연구결과, 즉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분석이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의 목적과 밀접히 관련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구성성분으로 분류하며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은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두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분석된 결과 하나 하나를 의미있게 설명하거나 분석된 사실에 보다 넓은 의미를 부여하여 의의를 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이론의 방향이 다르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이한 설명이나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해석도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다(한 상복외, 1989: 30).

분석과 해석은 연구문제의 성질이나 연구의 설계에 따라 같이 다를 수도 있고 별도로 다를 수도 있다. 해석은 분석된 결과의 의미를 풍부하게 혹은 확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분석이 곧 해석은 아니지만 분석과 해석은 따로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을 분석의 특수한 면으로 간주하여 같이 다루는 것이 편리하다.

이 분석과 해석의 두과정은 전체 연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으로서 이 두 과정을 위해 이전의 모든 과정,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 수정하고 보완하며 경과한다.

연구가 끝난 후에 전체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현지에서 최초의 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시작되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단계마다 계속 병행되어진다. 먼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수집된 자료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절차, 방법, 기술을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계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인들이 발생하기 쉬운 현지연구의 진행과정중에서도 계속 분석하고 해석하여 연구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연구의 진행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교육학교재편집위원회, 1986: 191-192). 그리고, 현지에서의 연구가 끝나면 수집된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수집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다(Spradley & McCurdy, 1972: 68-76). 먼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의미상의 내용분석을 행하여 여러 사실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영역을 확정한다. 그 후, 분류상의 내용분석을 행하여 분석영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분류유목을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성분분석을 하여 분류유목 항목과 요인간의 관계, 즉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러한 분류체계를 이루는 원리를 발견한다.

(2) 일반화와 이론형성 :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연구결과 및 그 의미를 찾아내면 이를 일반화를 통해서 확대하여 그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형성해야 한다. 일반화란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연구결과가 나온 사태와 똑같은 혹은 유사한 다른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밝힘으로써 연구결과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다(김재은, 1987: 370-372). 이러한 일반화는 실제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는 일반화의 범위에 의해 연구결과가 평가될 수 있다.

현지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을 다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일부분인 표본

만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엄격한 표본과 표준화된 측정에 근거된 결과보다 덜 일반적이어서 안전하게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여 자료에서 연구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끄집어 내고 또 새로운 사태속에서이 의미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결정요인을 적절히 찾아냄으로써 일반화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김재은, 1987: 373).

이론 발견의 절차 그 자체가 반드시 창의적 활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의 전개는 상상력과 창의적 활동을 요하기 때문에 이론을 전개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어느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 현지연구를 행하여 단일사례분석을 하여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고, 다수의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연구하여 이론을 도출해 낸다(한상복외, 1989: 31-32). 즉, 이론은 단일사례에서 얻은 자료만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사례를 분석하여 얻은 일반화를 바탕으로 해서 유사한 사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된 다수의 상이한 사례들을 비교연구하여 다시 높은 수준에서 일반화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4. 연구보고서 작성

현지에서 수집된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를 검증하고 평가하여 연구의 결과를 알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연구결과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으로 널리 보고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하여도 그 결과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그 연구는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보고서의 작성은 연구

의 최종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보고서에는 어떤 확실적인 양식이나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지연구는 그 범위가 넓고 그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연구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추구해 가는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보고서의 양식도 연구의 내용과 성격, 목적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연구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에는 연구의 성격이나 내용에 알맞는 독자적인 체제를 생각해 내어 창의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의 특색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결과의 요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학적인 작품과 달리 필요없는 수식적인 표현은 삼가하고 오직 소박하고 간결한 표현을 위주로 논리정연하게 서술하여 정확하게 연구결과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교육학교재편집위원회, 1986 : 152).

연구보고서의 작성양식은 아주 다양하지만, 초보자들에게 보고서 작성체제에 대한 어떤 시사를 줄 수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한다.

(보고서 작성 개요)

1. 서론

- 1) 연구목적
 - 2) 주요 용어의 정의
 - 3) 본 보고서 조직의 개요
 2. 현지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문화장면을 선정한 이유
 - 2) 자료제공자의 선정 및 접촉의 과정
 - 3) 자료제공자의 특성
 - 4) 자료수집의 방법
 - 5) 자료수집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제한점
 - 6) 기타 특기사항
 3. 환경과 상황
 - 1) 물리적 환경
 - 2) 사회적 상황
 4. 문화의 기술
 - 1) 주요 분석영역과 선정 이유
 - 2) 자료제공자의 범주체계의 구조
 - 3) 그 범주체계에 나타난 내재적 원리
 - 4) 그 범주체계의 기능 및 활용
 5. 결론
 - 1) 잠정적 해석
 - 2) 앞으로의 연구과제
- * 자료 : Spradley, 1972 : 83

참 고 문 헌

Babbie, E. (1983),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anks, J. A. (1981), "Ethnic Subsocieties and the Universal American Society" in Allyn & Bacon(eds.) *Multicultur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Boston.

Best, J. W. (1981), *Research in Education*,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Bruyn, S. T. (1966), *The Human Perspective in Sociology : the Methodology of Participant Observation*, Engle 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INC.
- Gold, R. L. (1969), "Roles in Sociological Field Observation" in G. J. McCall and J. L. Simmons (eds.), *Issues in Participant Observa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30~39.
- Gollnick, D. & Chin, P. (1983),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London: the C. V. Mosby Company.
- Khleif, B. B. (1974), "Issues in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the School" in G. D. Spindler (eds.), *Education and Cultural Process*,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Kneller, G. F. (1965), *Education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 Miller, D. C. (1979),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N. Y.: Longman.
- Singleton, J. (1974), "Implications of Education as Cultural Transmission" in G. D. Spindler (eds.), *Education and Cultural Process*,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pindler, G. D. (1974), *Education and Cultural Process*,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pradley, J. P. and D. W. McCurdy (1972), *The Cultural Experience: Ethnography in Complex Society*,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teiner, G. (1966), "A Conversation with Claude Levi-Strauss", *Encounter*, 26(4), 32~38.
- Travers, R. M. W. (1958), *An introduction to Educational Research*, N. Y.: Macmillan co..
- 교육학교재편집위원회 (1986), *교육연구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김광역 (1986), "한국사회연구의 인류학적 방법론: 민족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1), 131~157.
- 김영찬 (1985), *생활·문화·교육*, 신교육학강좌 (5), 교육과학사.
- 김재은 (1987),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 교육과학사.
- 김중서 (1980), *현장연구법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현대사회와 청소년*.
- 이강수 (1985.5), "건전한 청소년의 논리와 문화", *국회보*, 223, 91~98.
- 이광규·김영찬 (1982), *문화과정과 교육*, 교육과학신서 (11), 교육출판사.
- 이용숙 (1989.9), "문화기술적 수업연구방법", *한국교육*, 16(1), 41~79.
- 이재창 (1985.10), "청소년 문화의 의미와 유형", *청소년*, 31, 26~31.
- 이종각 (1984), *문화와 교육*, 배영사.
- 이중환 (1974), *청소년 문화론*, 현암사
- 이중환 (1986.10),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개발과 육성", *국회보*, 240, 83~89.
- 한상복 외 (1989),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